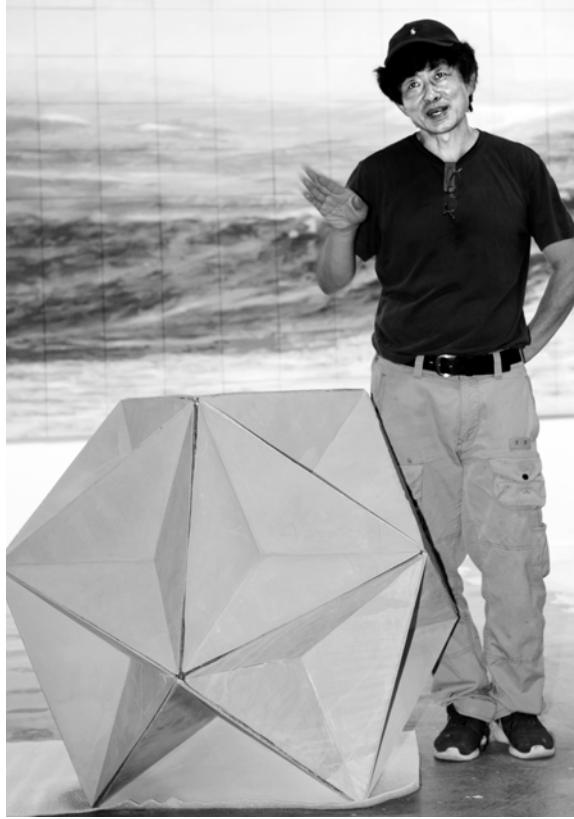


작품 200점이 사라졌다? 범인은 작가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비엔날레 기간 설치한 작품들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기자 choi@



시민들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 등에 붙어있는 '분실된 미술작품을 찾습니다'는 공고문을 보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nja@

광주비엔날레 참여 안규철 교수의 기발한 시도 광주일보 등에 분실 공고 내 관객 참여 유도 실종·회수·복원 과정까지 작품으로 만들어

광주비엔날레에 도둑이 들었다?

제 9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 참여작가의 작품 '그들이 떠난 곳에서 - 바다, 2012' 200여점이 통째로 사라졌다. 지난 7월 27일 광주 시내에서 분실됐다.

비엔날레와 작가는 광주시내 곳곳에 '분실된 미술작품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붙였다. 공고문에는 'A4 용지 크기 소형 캔버스에 회색으로 칠해졌고 뒷면엔 일련 번호가 적혀있다. 작품 소재를 아는 분은 연락해달라'고 적혀 있다. 광주일보 등 신문에도 분실 공고를 냈다.

시내 곳곳에 붙은 공고문과 신문 한 커트이에 게재된 광고 때문에 언론사에는 시민들의 제보도 잇따랐고 스마트폰으로 활영, 트위터나 카카오톡에 올리는 시민들도 생겨났다.

범인은 누구일까. 개막을 불과 17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사연은 이렇다. 국내 개념미술의 대표 작가라 할 수 있는 안규철(57)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비엔날레에 '관객 참여형 작품'을 내놓기로 했다. 도시를 회색빛 바다로 표현한 그림이 그려진 3호(27.3cm×19cm)짜리 캔버스 200개를 시내 곳곳에 버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신문에 분실 공고를 내고 돌려받아 전시실에 설치하는 게 기본 구상이다. 이 과정은 전부 영상으로 활용돼 비엔날레 기간에 선보인다.

안 교수는 회수된 것은 전시관에, 회수되

지 않은 자리는 그대로 비워두고 전시 기간 내내 돌려받은 작품을 순서대로 붙여 나갈 계획이다. 그는 여기에 세라믹으로 만든 별 모양 조각상도 깨트려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둔 뒤 되돌아오는 파편을 붙여 원래 모양을 만들어 전시하는 계획도 진행중이다.

또 작가는 직접 하모니카를 광주시내에서 연주한 뒤 조각조각 해체해 시내 곳곳에 숨겨 놓은 채로 마무리하는 '작품'도 준비하고 있다.

안 교수는 "어떠한 경우든, 광주라는 도시와 시민들 사이에 남아있는 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사라진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남는다는 얘기로, 5·18 광주항쟁과 '실종자'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전시다.

그는 "작설적으로 상기시키는 방식을 쓰지 않을 뿐 (작품이) 실종되고 회수돼 복원하는 과정 등 상당 부분에서 광주의 이야기를 반영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80년 광주민중항쟁으로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병 속에 편지를 넣어 던져면서 갖는 낭만적 기대감,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 그리움 등도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작가는 보낸 세라믹 조각상을 받았다는 김모(50)씨는 "이런 것도 작품이 된다는 걸 알고 신기했다"면서 "세계적인 행사에 전시되는 건데 그립 실력이 좋지 않아도 뭔가 그려 보내야 하지 않을까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2년간 7920가구 인허가

26~30㎡ 규모 원룸형·임대형 수익형 대다수

광주시내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물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본격화한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총 135건에 7920 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특히 2011년 8월 이후 1년 동안 110건에 6900여 가구가 인허가를 받

았다.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100가구 이상 규모가 21곳 3800여 가구에 달해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구별로 독립된 주

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도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1실 구획 허용 등 건축 규제 완화와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저리(연 2%)로 빌려주는 등 기금지원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

광주지역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80%가량은 가구당

면적이 26~30㎡ 규모의 원룸형·임대형 수익형이다. 임대형 수익형이란 사업자가 임대를 책임지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떼고 나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를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지하철역, 대학가 부근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상당수는 을 연말 또는 내년에 완공돼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2인 가구의 주거 패턴이 기존의 원룸주택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화할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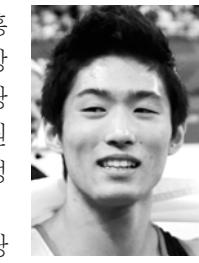
양학선·기보배·최은숙 선수 광주 U대회 홍보대사로

오늘 런던올림픽 환영식

런던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체조의 양학선(20) 선수와 여자 양궁의 기보배(24), 여자 펜싱의 최은숙(26)선수가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광주시와 2015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는 21일 오전 광주시청 비즈니스 룸에서 양학선 등 3명의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런던올림픽의 열기를 광주U대회로 확산시킬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강운태 조직위원장은 이날 3명



양학선 선수



기보배 선수



최은숙 선수

의 선수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광주U대회 응원 메시지도 작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시청 대회 화의실에서 3명

의 선수와 가족,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런던올림픽 영웅들에 대한 시민 환영대회를 갖는다.

U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광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양학선·기보배·최은숙 선수는 세계적

으로 인지도가 높고 U대회가 열리는 2015년까지 선수생활을 할 수 있어 이들이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광주U대회 홍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18억 투입 광주 2컨벤션센터 오늘 첫 삽

내년 5월 준공

광주시는 21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부지 내에서 제2컨벤션센터 건립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인공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제2컨벤션센터는 국비와 시비 등 총 618억원이 투입되고, 면적 1만 8490.5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13년 5월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지대회,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KTX 개통 등 접

근성 개선으로 발생할 다양한 컨벤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광

주를 호남권 MICE 산업의 하브도시

로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 천주교 광주대교구 舊 교구청 문화재 예고

문화재청은 목포 천주교 광주대교구 구(舊) 교구청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교구청은 1937년 광주지 목구가 설립된 후 최초로 광주·전남지역 선교 거점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1956년 교구청이 광주로 이전된 후에는 성



골룸반외방선교수녀회 수녀원목포분원, 성 골룸반 병원, 성신간호전문대학 등으로 사용됐다.

건물은 정면 중앙의 반원아치와 필리스터(벽체 불입기둥)로 장식된 현관을 중심으로 대형을 이룬다. 내부의 목조계단, 천장 장식 등은 전체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됐다.

문화재청은 교구청이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초기 역사와 성 골룸반외방

공천현금 의혹 혈연희 의원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공천현금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20일 무소속 혈연희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이에 따라 대검, 법무부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야 하지만 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부과가피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보등의를 구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있어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점은 오는 22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 19일까지 현 의원을 세 차례 소환해 14~15시간씩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소환조사를 마무리했고, 현 의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혐의를 대부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페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 · 공휴일	12:00 ~ 20:00

※돌파주, 넷째주 일요일 휴무입니다.

SKY 골프 Club 연습장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